

『중유일기』와 『열하일기』의 거리, 오마주와 표절 사이

이 은 주 *

- 1. 서론
- 2. 『중유일기』에 나타난 『열하일기』의 흔적
- 3. 텍스트의 혼재와 균열
 - 1) 『열하일기』의 의미
 - 2) 시대의 착종, 인식의 균열
- 4. 결론

1. 서론

전근대시기에 글을 쓸 때 이전의 텍스트를 중첩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압축적이되 함축적인 효과를 위해 典故를 활용하는 양상으로, 또 어떤 특정한 스타일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특정한 문인의 시문의 구절을 원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전의 텍스트를 축적한 위에서 글을 쓰다보면 내용의 깊이를 얻을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표절’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표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전의 문인들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이미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¹⁾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1) 단적으로 장유의 「詩家剽竊」(『계곡만필』 권2)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左太冲이 쓴 〈詠史〉의 “臨組不肯繙, 對珪寧肯分” 시구가 謢靈運이 쓴 〈述祖德詩〉의 “臨組乍不繙, 對珪寧肯分”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차용을 할 때 글자를 바꾸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절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표절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텍스트 수용자의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텍스트를 읽고 즉각적으로 이것이 다른 텍스트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표절이 아니라 인용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고 활용과 표절을 구분하는 데에는 유사한 정도나 범위의 문제보다 원텍스트의 지명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원텍스트가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시에 비해 산문의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이전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삽입하는 방식을 전통적인 글쓰기의 한 형태로 이해할 것인지 표절로 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떤 지식을 체계화하는 저술이 아니라 명백하게 ‘자신의 견문’이 전제되는 글이라면 이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조선시대 여행 문헌에서 발견되는 중복된 표현들에 대해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²⁾ 여행기가 여행한 당사자의 견문을 담은 글이라는 독자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20세기 개성의 문인이자 사업가였던 孔聖學이 쓴 『中遊日記』를³⁾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중유일기』는 1923년에 홍삼 판로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을 여행한 뒤에 쓴 여행기이므로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선시대 여행록 및 1920년대 또 다른 중국 여행기 『亞洲紀行』의 서술과 비교하면서 『중유일기』의 글쓰기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2. 『중유일기』에 나타난 『열하일기』의 흔적

조선시대 여행록에서 특히 텍스트 간에 중복된 표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
- 2) 여행록에서 중복/표절 문제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張伯偉, 2017 「‘연행록’ 및 관련 문헌의 ‘진실성’ 문제 初探」 『대동문화연구』 97, 9-44면; 진재교, 2017 「‘연행록’과 지식·정보」 『대동문화연구』 97, 45-80면; 김영죽, 2017 「연행 체험 기록의 관행과 그 매커니즘」 『한국고전연구』 34, 265-304면.
- 3) 공성학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은주, 2012 「일제강점기 개성상인 공성학의 간행사업 연구」 『어문학』 118, 183-216면; 노관범, 2015 「근대 개성 문인 공성학의 지역 활동과 『춘포시집』」 『반교어문연구』 40, 333-372면; 박영미, 2015 「공성학의 『탕도기행』에 대하여」 『한문학보』 32, 277-306면. 『중유일기』에 대해서는 이은주, 2012 「1923년 개성상인의 중국유람기 『중유일기』 연구」 『국문학연구』 25, 181-212면 참조.

거의 동일한 여정을 반복하는 연행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정한 시기마다 한양에서 북경으로 가는 여정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사행 가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행 길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했다. 이전에 지어진 연행록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자신이 거쳐 가야 할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 중에서 어떤 곳 또는 어떤 일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훌륭한 지침서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행을 마치고 돌아와 기록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었다. 그럴 때에는 이전의 연행록을 발췌해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 내용을 자기식대로 약간만 바꿔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연행록의 기록이 당시 자신이 직접 본 견문을 서술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⁴⁾ 충분히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연행록 사이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유사한 대목이 등장할 때 이를 모두 오늘날의 ‘표절’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중국의 자연지리와 제도, 시문 등의 제반 정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정리하는 일은⁵⁾ 설사 그대로 옮겨 썼다고 해도 전근대시기 글쓰기에 서는 매우 보편적이었고 부정적으로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조선중기 이후 끊임없이 연행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연행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연행을 통한 중국 체험은 개인의 사적 체험이지만 동시에 한 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연행록 또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체험을 담은 기록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공적 지식을 집적하는 문헌으로 이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행록의 글쓰기 양상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연행록과 다양한 문헌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방향성을 보이게 되었을⁶⁾ 것이다.

그래서 지리 정보나 어떤 사안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전의 연행록의 서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텍스트에⁷⁾ 대해 실상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연행록의 정보가

4) 장백위, 앞의 논문, 15면.

5) 장백위의 논문(16-17면)에서는 연행 문헌 속의 ‘표절’을 크게 이전의 연행록을 베껴 쓴 것과 저자가 중국의 관련 문헌을 옮겨 쓴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진실성 상실[失實]”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다.

6) 진재교, 앞의 논문, 48면.

7) 김영죽, 앞의 논문, 287-294면. 이 논문에서 이전 텍스트를 답습한 예로 松山保에 대해 『一

축적된 것으로 보는 시각차가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연행록이 유통되면서 지식이 공유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비록 공식적인 사행을 통해 간 것을 아니지만 20세기 초에 중국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썼을 때 자연스럽게 이전의 연행기록을 참고자료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성학의 『중유일기』에 조선시대 연행록의 관습적인 글쓰기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급격하게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의 연행록의 정보들이 1923년의 중국을 보고 겪은 『중유일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유일기』에 나타난 서술의 특징은 어떤 유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점이 있으면 추가해서 서술하는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4월 26일에 북경의 천단을 설명할 때 여러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기술하면서 “몇 년 전에 張勳이 復辟 사건을⁸⁾ 일으켰을 때 천단 구역 안이 그들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한다.”⁹⁾ 같은 표현을 덧붙이는데, 이 사건은 1917년에 일어났으므로 공성학이 여행 당시 들었던 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최신의 정보를 덧붙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여러 대목에서 발견된다.

이번 여행에서는 참고 자료가 없어서 그저 重譯에 의지하여 상해의 연혁을 대략 들었다. 상해는 春申君 黃歇에게 식읍으로 봉해주었던 땅이었는데 ‘申江’, ‘黃浦’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상해에 와서 개항하였고(개항장 세관에는 영국인 동상이 있다.) 통상 조약으로 상권이 발전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연이어 들어왔으니 이로 인해 날마다 공사하는 곳이 많아지고 높고 큰 규모의 건물이 세워져서 ‘작은 서양’이라고 불렸으며, 수레와 사람의 어깨가 맞부딪칠 정도로 혼잡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각 조계지에는 사람들

菟燕記 내용 일부를 가져온 『桑蓬錄』, 清人에 대해 『燕行日記』를 가져온 『北轍錄』, 漢의 머리모양, 변발과 수염 모양에 대해 『蔚山起程』을 가져온 『燕蔚記略』의 유사한 구절을 각각 제시하였다.

8) ‘張勳復辟’ 또는 ‘丁巳復辟’이라고 불리는 사건. 張勳(1854~1923)은 청말의 북양군벌로 운남, 감숙, 강남의 제독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신해혁명 이후 청의 황제 傅儀(1906~1967)가 1912년 2월에 퇴위했는데 1917년 장훈을 위시한 왕정복고파가 장훈의 섭정하에 부의를 복위시켰다. 이 기간은 고작 12일간이었고 이후 段祺瑞가 이끄는 ‘討逆軍’에게 패배하였다.

9) 공성학, 『중유일기』 4월 26일 “年前張勳復辟之舉，天壇範圍內爲其巢窟云。”

의 소요를 방어하기 위해 곳곳마다 경비병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백만 명이 된다고 한다. 永安公司는 상해의 제일가는 굴지의 건물로, 무늬 있는 창문과 아로새긴 난간, 안팎으로 진열된 진귀한 물품이 외관을 아름답게 꾸몄고, 수많은 고객들을 자주 유치하기 위해서 3층에 공연을 할 수 있는 2개의 대광장을 만들었다. 그 웅장한 규모와 섬세한 배치는 경탄할 만하였다. 이 백화점 주인은 광동성 사람인데, 중국 거상들은 대부분 광동성 출신이라고 한다.¹⁰⁾

공성학은 상해에 대해 서술하면서 중국 역사서에 나온 예전 정보보다는 20세기 이후의 새로운 변모에 초점을 맞췄다.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로 붐비는 복잡한 대도시인 상해에서 개항장으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근대적 모습을 읽어냈다. 단적인 예로 영안공사는 당시에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고급 백화점이었다. 그래서 이 서술은 공성학이 여행 당시 안내자의 설명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이전의 텍스트를 차용한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항장 세관에 있는 “영국인 동상”은 중국 세관의 總稅務司를 지낸 로버트 하트(Rober Hart)의 동상으로 1914년에 상해에 동상이 세워졌다. 영안공사는 1918년에 만들어졌으므로 위의 서술은 비교적 최근의 정보였다. 뒤에 나온 외관에 대한 서술과 전언에서도 직접 보고 들은 현장감이 드러난다. 때문에 공성학의 『중유일기』는 이전의 연행록처럼 유적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를 참고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비교적 직접 보거나 듣고 느낀 서술이 내용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유일기』의 이러한 서술적 특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산견되는 다음의 구절들이 더 문제적으로 다가온다.

▣ 가다가 상여를 만났다. 큰 상여는 방만큼 컼고, 비단으로 휘장을 췄는데 구름과 새와 용이 그려져 있었다. 상여의 꼭대기에는 오색실을 묶어서 매듭을 만들었다.

10) 공성학, 『중유일기』 4월 6일 “今來未得參考的文字, 只憑重譯之口舌, 概聞上海之沿革. 上海, 本春申君黃歇所封之地, 而曰申江曰黃浦者, 是也. 距今七十年前, 英人先來開拓(海關場有英人銅像), 條約通商, 商權發展, 米法德日, 接踵而來, 由是土木日興, 飛樓傑閣, 堪稱小西洋. 而以致轂擊肩磨之今日矣. 各租界, 一一有把守兵, 以防群衆之紛亂, 現住人口, 爲百萬云. 如永安公司者, 上海第一屈指家也, 文窓彫欄, 陳列內外珍品, 美其觀, 三階上設演劇二大廣場, 爲千客萬來之策, 其規模之雄壯, 排布之纖密, 令人驚歎, 該商主是廣東省人, 而中華豪商多出廣東云.”

쌍으로 된 끌채의 길이는 일고여덟 발이고 붉은 칠을 하고 도금을 하였다. 옆으로 난 멜대는 앞뒤로 두었는데 상여꾼들이 4, 50명에 밀돌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 금색으로 銘旌을 썼다. 붉은 일산, 푸른 일산, 검은 일산이 각각 몇 쌍이 되었다. 깃발이 대여섯 쌍이고 축산마가 한 쌍이며, 꾀리·젓대·북·나팔 등 악대가 뒤를 이었다. 중과 도사들이 각각 복장을 갖추어 입고,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면서 앞에서 인도하였다. 상주와 친족인 남자와 여자가 각각 소복을 입고서 인력거를 타고서 상여의 뒤를 따라갔다. 그 앞뒤의 행렬이 잡다하게 펼쳐져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¹¹⁾ (밑줄은 인용자 표시, 이하 동일)

▣ 길에서 날마다 상여(喪輦)를 만났는데, 그 제도가 일정치 않으나 매우 질박하고 둔탁해 보였다. 큰 상여는 거의 방 두 칸 만한데 오색 비단으로 휘장을 치고, 거기다 구름·꿩·참새 같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다. 상여의 꼭대기에는 은빛으로 도배를 하기도 하고 오색실을 꼬아서 끈을 만들어서 달기도 하였다. 쌍으로 된 끌채의 길이는 거의 일고여덟 발이나 되는데, 붉은 칠을 하고 누런 구리로 장식하여 도금한 것이 두드러졌다. 옆으로 난 멜대는 앞뒤 각기 다섯 개이고 길이도 서너 발이 되고 그 위에 짧은 멜대가 있어 두 끝을 어깨에 메도록 했다. 상여꾼은 적어도 수백 명이고, 명정은 모두 붉은 비단에 황금빛 글씨로 썼다. 명정을 단 대나무는 높이가 세 길이고 검은 칠을 한 뒤 그 위에 황금 빛깔의 용을 그렸다. 대나무 아래에는 받침대가 있어 역시 쌍으로 멜대를 만들어서 반드시 아홉 사람이 메도록 했다. 붉은 일산 한 쌍, 푸른 일산 한 쌍, 검은 일산 한 쌍, 깃발 대여섯 쌍이 따르고 꾀리·젓대·북·나팔 등 악대가 뒤를 잇고, 중과 도사들이 각각 복장을 갖추고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며 그 뒤를 따른다. 중국에서는 만사를 간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라도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는데 이 장례 제도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¹²⁾

11) 공성학, 『중유일기』 4월 6일 “道逢喪輿. 輿之大如屋子, 以錦緞爲帷帳, 繪畫雲物鳥龍. 輿頂, 結五色絲爲紐, 雙轅長七八丈, 紅漆鍍金, 橫杠前後, 擔夫下不下四五十人. 金子寫銘旌, 紅蓋青蓋黑蓋, 各幾雙, 幢幃五六對, 竹散馬一雙, 繼之笙簫鼓吹, 僧徒道流, 各具其服, 詩唱念呪, 以前導, 喪主及親族男女, 各素服, 乘腕車, 以隨輿後. 其前後儀容羅列冗雜, 殆不可以曉其意而取其法.” 이하 원문에서 아래 주석에 나온 『열하일기』와 유사한 표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 장면은 金景善(1788~1853)의 『燕轅直指』 권6, 「留館別錄」·「人物謠俗」에도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은 서문에서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기행문을 종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일기체인 다른 권들과 분리하여 별록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유일기』의 서술방식과 다르다. 『중유일기』와 『열하일기』의 표현상의 유사성은 『중유일기』를 번역하는 공동 작업에서 박동욱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12) 朴趾源, 『熱河日記』·『駟汎隨筆』·『車制』 “沿道日逢喪輿, 不一其制, 而太質鈍, 輿之大, 幾如二間屋子, 以五色錦緞爲帷帳, 雜畫雲物雉雀, 亭頂或爛銀, 或結五色絲爲紐, 雙轅長幾七八丈,

공성학은 4월 1일에 개성을 출발하여 일본의 시모노세키[馬關], 오무타[大牟田],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고¹³⁾ 4월 6일에 상해에 도착했다. 그는 26시간 동안 배를 타고 상해항에 도착한 다음에 중국에서 처음 본 광경이었다. 상여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여기에서 너무 번다하고 잡다해서 본받을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은 일본의 근대화를 우위에 두고 중국의 낙후성을 부각시킨¹⁴⁾ 『중유일기』의 전반적인 기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공성학이 상해에서 본 상여 행렬을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에서 보듯이 이 표현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한 부분을 대거 가져온 것 이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연행록의 글쓰기 관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연행록은 여정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장소나 같은 인물, 사항에 대해 이전의 텍스트를 옮겨 썼고 옮겨 쓴 내용은 거의 관련된 정보의 제시에 국한되었다. 그는 「駢汎隨筆」에 들어있는 부분으로 이 편은 박지원 일행이 北鎮廟 일대, 곧 지금의 遼寧省 北寧을 구경하면서 쓴 기록이었다. 18세기와¹⁵⁾ 20세기 간에 시간적 낙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관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여의 묘사와 이를 통해 도출해내는 소감은 『열하일기』의 구절을 가져오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¹⁶⁾

紅漆飾以黃銅, 鎏金出色. 橫杠前後各五, 亦長三四丈, 更以短杠, 兩頭肩擔. 擔夫不下數百人, 銘旌皆紅緞金字書寫. 旗竿三丈, 黑漆畫金龍. 竿下有跗, 亦架雙杠, 必九人擔之. 紅蓋一雙, 青蓋一雙, 黑蓋一雙, 檻幢五六對, 繼之笙簫鼓吹, 僧徒道流, 各具其服, 詠嘆念呴, 以隨輿後. 中國萬事莫不簡便, 而無一冗費, 此最不可曉, 非可取法也.” 이하 『열하일기』의 번역문은 김혈조가 번역한 『열하일기』(2009, 돌베개)를 참고하되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13) 『중유일기』 4월 1일의 일기에서는 개성에서 중국을 갈 때 육로를 통해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으나 공성학 일행이 일본을 거쳐 배를 타고 상해로 가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비적과 일본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4) 이은주, 위의 논문.

15) 박지원은 1780년(정조 4)에 건륭제의 칠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삼종형 朴明源을 수행하여 사행에 참여하였다.

16) 『중유일기』에서는 4월 26일 북경에서 우연히 신행 가는 행차를 보고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열하일기』「도강록」 7월 3일에 우연히 문 앞에서 보게 된 행차 모습

이 중국 여행이 홍삼 판로를 시찰하는 데에 있었던 만큼, 공성학은 상해에서 5대 參號와 만나 홍삼 판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4월 9일에 항주로 이동하여 4월 10일 서호를 구경하고 항주성 안의 시가지를 통과하면서 본 풍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항주성내 시가지를 통과했는데, 길이 좁아서 인력거를 나란히 하여 지나갈 수 없었다. 길의 좌우에 있는 점포에는 의자와 탁자, 주렴과 회장뿐만 아니라 그릇, 화초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고 가게의 문패와 현판이 한 점포에 수십 개이고 금색과 푸른색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으니, 미관을 위해 낭비한 것이 천금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재물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¹⁷⁾

▣ 봉황성은 중국의 동쪽 끝이자 변방의 출입문으로, 궁벽하고 후미져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인데도 의자와 탁자, 주렴과 회장뿐만 아니라 집 기류, 화초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고 가게의 문패와 현판이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으니 미관을 위한 낭비가 천금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재물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¹⁸⁾

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중유일기』는 『열하일기』 구절을 대폭 축약해서 가져왔다. 『중유일기』의 해당 구절은 “適觀婚行過門者，綵畫紗燈四五對，青蓋一對，紅蓋一對，簾一雙，簾簾一雙，疊鉢一雙，中央四人肩擔綵絲繡轎，轎後二三腕車，髻插花朵，兩耳垂墜，似是粧婆乳媼，而不若吾東之雅儀。” 『열하일기』의 해당 구절은 “門前有簾筩鏤鉢之聲，急出觀之，乃迎親禮也。彩畫紗燈六對，青蓋一對，紅蓋一對，簾一雙，簾簾一雙，疊鉢一雙，中央四人肩擔一座青屋轎，四面傅玻璃爲牕，四角襯彩絲流蘇，轎正腰爲杠，以青絲大繩，橫絞杠之前後，再以短杠，當中貫絞，兩頭肩荷，四人八蹄，一行接武，不動不搖，懸空而行，此法大妙。轎後有兩車，皆以黑布爲屋，駕一驢而行，一車共載四個老婆，面俱老醜，而不廢朱粉，顛髮盡禿，光緒如匏，寸髻北指，猶滿插花朵，兩耳垂墜，黑衣黃裳，一車共載三少婦，朱衿或綠衿，都不繫裳，其中一少女，頗有姿色。蓋老是粧婆乳媼。”이다.

- 17) 공성학, 『중유일기』 4월 10일 “通過杭州城內市街，道狹不能容腕車之駢進。而左右塵舖，不特椅桌簾帷，器皿花草，俱是刲覩，其招牌認榜，一鋪數十，金碧侈華，即其觀美，浪費不啻千金，蓋不若是，則賣買不旺，財神不佑矣。”
- 18) 朴趾源, 『熱河日記』 「駟汎隨筆」 ‘市肆’ “鳳城乃東盡頭，邊門僻奧，更無進步之地，而不特椅卓簾帷艷侈，器什花草，俱是刲覩，其招牌認榜，競侈爭華，即其觀美，浪費不啻千金，蓋不若是，則賣買不旺，財神不祐。”

□에서 공성학은 인력거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의 상점인데도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풍조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의 『열하일기』의 표현과 매우 흡사하다. 봉황성이 중국에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상점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유사한 표현은 이밖에도 더 찾을 수 있다. 공연장에 가서 “무대는 높고 웅장하여 상점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깊고 넓지 않으면 많은 관객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걸상, 탁자, 의자, 받침대 등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대략 천 개 정도 된다.”는¹⁹⁾ 『열하일기』의 “높고 깊고 웅장하고 훤히하여 상점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깊고 넓지 않으면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걸상, 탁자, 의자, 받침대 등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대략 천 개 정도 된다.”를²⁰⁾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경우에는 묘사의 대상이 공연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공통점이 없는데 표현을 가져온 경우도 있다. 상해의 요리점에 갔을 때 기녀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四聲과 五音의 韻調를 이해하지 못하여 다만 노랫소리를 듣기만 하였는데, 노랫소리는 긴장되고 무척 빨랐으며 혀가 뻣뻣하고 목이 잠겨 마치 젖먹이 어린애가 어리광 부리는 것 같았다”는²¹⁾ 『열하일기』의 “목소리는 쪄렁쩌렁 컸지만 혀가 뻣뻣하고 목이 잠겨 마치 젖먹이 어린애가 어리광하듯 취객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주사를 부리는 듯하였다.”와²²⁾ 유사하다. 서술의 맥락은 차이가 있어서 『중유일기』에서는 기녀가 중국어로 부르는 노랫소리를, 『열하일기』에서는 조선에서 棚門으로 나간 뒤에 조선 사람이 廳舍를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조선말[東話]로 호통치는 청

19) 공성학, 『중유일기』 4월 7일 “舞臺劇場建物之高深雄傑, 非店舗可比. 不若是深廣, 難容萬衆, 燧卓椅几 凡係坐具, 動以千計.”

20) 朴趾源, 『熱河日記』「駢汎隨筆」‘戲臺’ “寺觀及廟堂對門, 必有一座戲臺. 皆架七梁, 或架九梁, 高深雄傑, 非店舍所比. 不若是深廣, 難容萬衆, 燧卓椅几, 凡係坐具, 動以千計, 丹礲精修.”

21) 공성학, 『중유일기』 4월 7일 “余不解四聲五音之韻調, 而但聽人聲, 樂音緊張而促急, 舌強喉濶, 如乳孩弄嬌.”

22) 朴趾源, 『熱河日記』「渡江錄」 6월 27일 “聲雖嘶哮, 舌強喉濶, 如乳孩弄嬌, 醉客使癡”

나라 통역관 雙林의 목소리를 형용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어를 형용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사성에 착안하여 이 표현을 가져왔는지 그 의도는 불 분명하다. 공연장소라는 특정한 장소, 기녀의 목소리를 형용하는 것처럼 공성학 은 관련 정보를 가져오는 차원이 아니라 비슷한 풍경을 볼 때 『열하일기』에서 적당한 구절을 무작위로 가져와서 자신의 글에 삽입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표 절’ 의혹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묘사 장면에서 누군가가 이전에 쓴 표현을 대거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 만, 더 큰 문제는 앞에서 예로 든 두 가지 예시의 경우 특정한 장면을 보고 느 낀 생각까지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유일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 이전의 여행록의 독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여행록의 동일한 장소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열하일기』의 표현이 부분적으로 삽 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성학은 『중유일기』에서 박지원이나 『열하일기』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고,²³⁾ 가져온 표현은 『열하일기』에서 유명 하거나 인상적인 구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들이다. 그렇다면 『열하일기』의 구절이 군데군데 들어있는 『중유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겸 토해야 할 것이다.

3. 텍스트의 혼재와 균열

1) 『열하일기』의 의미

앞 장에서는 『중유일기』에 부분적으로 『열하일기』의 구절이 거의 그대로 등장 하며 이것은 거의 표절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구절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성학의 저작의 특징은 순한문체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을 선택했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 공성학을 위시한 개성상인(문인)에게만

23) 권두에 나오는 손봉상과 공성학의 서문에는 공성학이 여행하는 동안 수첩에 메모한 것을 귀국한 뒤 천마산의 관음사에서 정리하여 기록했다는 사실만 나와 있다.

해당되는 특성으로 볼 수는 없다. 또 1923년 9월호에 『開闢』에 실린 東曲의 「杭州西湖에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쓴 글이지만 유명한 한시를 음송하거나 관련되는 인물과 고사를 연상하면서 감회에 젖었다. 이 글에서도 『중유일기』와 마찬가지로 서호의 蘇堤와 白堤, 기녀 蘇小小를 언급하고 있다. 명소를 관광할 때 관련되는 문학작품이나 문화적 전통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결국 핵심은 내용상의 유사성이 아니라 『열하일기』 구절이 부분적으로 『중유일기』에 포개지는 글쓰기 방식에 있을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특정 구절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성학은 『중유일기』를 쓰면서 분명히 『열하일기』를 참고했고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삽입했다.

왜 『열하일기』를 골랐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성학과 『열하일기』 사이에 놓인 연결고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20세기 이후 여러 차례 公刊되었는데, 『중유일기』를 쓴 1923년 이전까지로만 보면 金澤榮이 「열하일기」를 포함시켜 간행한 『연암집』, 『연암속집』과 崔南善이 간행한 『열하일기』가 있다. 그런데 최남선이 1911년에 『열하일기』 전편을 그대로 간행했던 것과는 달리, 김택영은 1899년에 박지원의 시문이 모두 실린 원고를 빌려 金應洙와 교정했고 1900년에 시 33수와 문 117수를 정선하여 『연암집』 6권 2책을 간행하였다. 또 이듬해인 1901년에 『열하일기』 24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연암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 11수를 선별하여 『燕巖續集』을 간행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김택영은 1916년에 국내에서 간행한 『연암집』과 『연암속집』을 합편하여 『重編朴燕巖先生文集』을 간행하면서 평어와 비첨을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김택영이 1916년까지 여러 차례 간행하면서 『열하일기』 전편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간행했다는 것이다. 김택영은 박지원의 정수를 담은 글을 精選한다는 원칙 아래 『연암속지』를 편찬할 때 「열하일기」 중 8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했고, 이렇게 작품을 선별한 것에 대해 “앞의 7권은 왕래한 여정을 서술한 것으로 온전히 碑體로 쓴 것이라 취할 것이 없다.”라는²⁴⁾ 표현으로 산문에 대한 나름의 감식안을 천명하였다.²⁵⁾

24) 김택영 편, 『燕巖續集』 권1, 「熱河日記後識」 “首七卷敍程路往返，純用碑體不足取。”

1923년의 중국 여행 때 특별히 남통에 가서 만나고 올 정도로 김택영을 존경했던 공성학은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김택영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리라 추측되지만,²⁶⁾ 공성학은 시집을 남겼을 뿐 기행문이나 약간의 서발문 이외에 산문은 거의 쓰지 않았다. 비록 『중유일기』에서 “홍삼 농사꾼[夢農者]”이며²⁷⁾ “저술가가 아니[非著述家]”라고 천명한 적이 있다고 해도, 공성학은 8권 8책이라는 적지 않은 『春圃詩集』을 남겼다. 또 왕성순이 『여한십가문초』를 편찬했을 때 李箕紹와 함께 책 전편의 參訂을 담당할 정도로 문학적 소양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성학이 『중유일기』이나 그 밖의 다른 저술에서도 가장 공력을 쏟고 자신 있어 했던 장르는 시였다. 공성학 일행은 가는 곳마다 시를 지었는데 『중유일기』에서는 감회를 쓴 시를 부분적으로 삽입하는 것에 그쳤지만, 『湖西紀征』처럼 기행시만 정리해서 출판한 경우도 있었다. 『南遊錄』, 『香臺紀覽』, 『蓬萊聯賞錄』도 『중유일기』에 비해 시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그래서 공성학이 중국 여행을 마치고 전체 일정과 견문을 정리하면서 『중유일기』를 썼을 때 자신이 쓴 단편적인 메모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록의 저자들이 이전의 여행록을 참고했던 것처럼 공성학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중국 여행기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여정과 견문을 정리했을 것이다. 이때 개성지식인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김택영이 문집을 간행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우선적으로 선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김택영이 「열하일기」를 선별한 기준이 여정 기록을 제외한 산문이었기 때문에 『열하일기』에서 「도강록」 또는 「일신수필」의 해당 구절이 김택영의 『연암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정이 중심이 된 기록들을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성학은 날짜순으로 여행한 지역과 견문을 쓰는 방식으로 『중유일기』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참고자료는 그전에 유통되던

25) 정재철, 2016 「김택영의 『연암집』 편찬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63.

26) 유봉학, 1994 「조선후기 개성지식인의 동향과 북학사상 수용: 최한기와 김택영을 중심으로」, 『규장각』 16, 85-98면. 이 글에서는 연암일파의 북학적 학풍과 문풍이 개성지식인에게 수용, 계승되었으며, 최한기와는 달리 김택영은 농암 아래 연암 일파까지의 시문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 공성학, 『중유일기』 4월 8일.

필사본 또는 최남선이 간행한 『열하일기』 전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공성학이 『열하일기』를 참고하면서 『중유일기』를 쓸 때 『열하일기』의 영향력은 단순히 묘사의 일부를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었다. 『열하일기』를 참고 자료로 보면서 공성학은 자신이 박지원과 같은 경험을 여럿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열하일기』에 심양을 떠나 7월 13일에 新民屯에서 박지원은 시장 점포 주인에게 주련을 써주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요청을 받고 글씨를 써 주었다. 박지원은 여러 차례 글씨를 써 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7월 14일 小黑山에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나는 주련을 쓰기에 적당한 크기로 종이를 잘라 “옹이 즐기는 것은 산림이니, 객도 저 물과 달을 아시는가?(翁之樂者山林也, 客亦知夫水月乎)”라고 적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투어 먹을 갈며,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종이를 찾으러 가는 것 같다.²⁸⁾

■ 아카자키(岡崎) 씨가 명주를 가져와 나에게 붓을 들고 오언질구를 써달라고 하여 “봄바람 불 때 유람하는 사람이, 배 타고 천진 가는 길을 묻네. 수많은 미인들끼고 앉아, 강의 누대에서 한껏 취했다(春風浪遊客, 一棹問天津. 坐擁紅裙密, 江樓醉殺人)”라고 썼다. 여러 여인이 다투어 써달라고 수십 폭에 달하는 명주비단을 주어 종이 열두 번 칠 때까지 쓸 판이었다. 나는 느리고 둔한 붓놀림 때문에 아가씨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다가 완력으로 탈출하였는데 술이 땀으로 변하는 듯하였다. 도망쳐 나와서는 차를 재촉하여 여관으로 왔다.²⁹⁾

박지원이 주련을 써달라는 요청에 여러 차례 글씨를 써주었던 것처럼 공성학도 사람들의 요청으로 몇 차례 글씨를 써 주었다. 심지어 ■에서 볼 수 있듯이 천진에서는 극장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이들의 요청에 따라 붓을 들고 오언

28) 朴趾源, 『熱河日記』「盛京雜識」7월 14일 “余遂剪作柱聯書之曰, ‘翁之樂者山林也, 客亦知夫水月乎’. 於是諸人, 駟大歡樂, 爭爲磨墨, 來去紛紛, 皆覓紙故也.”

29) 공성학, 『중유일기』, 4월 28일 “被支店長招待, 赴神戶館, 館在海濱三層建物鮮明, 範圍廣大. 內有劇場疊席設百六十七枚, 美娥成群, 擁坐勸飲, 不覺酩酊. 岡崎氏取來疋絹, 要余把筆卽書贈五絕, “春風浪遊客, 一棹問天津. 坐擁紅裙密, 江樓醉殺人.” 群娥爭要書, 贈連至數十幅絹疋, 將盡鍾欲十二打矣. 余以遲鈍筆鋒, 困在娘子軍垓心, 而腕力脫閼酒化汗, 而迸出促車歸館.”

절구를 써주다가 힘에 부쳐서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다.

체제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일기체 형식으로 작성된 대부분의 연행록에서 일기와 잡록을 완전히 분리시켜 편집하고 있는 반면에 『열하일기』에서는 「遼東白塔記」, 「關帝廟記」, 「古董錄」 등의 별개의 기록이 일기 사이사이에 들어 있다. 『중유일기』에서는 이렇게 일기에 별기를 수록하는 형태를 선택하였다. 4월 7일에 중국의 삼호들과 만나서 홍삼 판매 근수, 가격, 점포별 근수 등 홍삼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였고, 4월 27일에 문묘의 석고에 대해 「石鼓記」를 붙였다. 5월 3일에 곡부를 갔을 때도 「文廟別記」, 「聖林別記」를 따로 작성하여 해당 날짜의 일기 안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중유일기』에는 『열하일기』의 흔적이 뚜렷하거나 희미한 형태로 담겨있게 되었다. 공성학은 『중유일기』를 작성할 때 『열하일기』를 적극적으로 참고했으며, 그대로 가져온 몇몇 구절은 『열하일기』의 영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김택영은 『열하일기』에서 노정기 부분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 정작 공성학이 『중유일기』에서 옮겨 쓴 부분은 노정기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성학이 『여한십가문초』를 교정하면서 산문에 대한 감식안을 확보했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산문 글쓰기의 수준을 담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유일기』에서 가져온 『열하일기』의 구절들이 묘사적 표현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산문에 관한 한 공성학이 김택영과 다른 입장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공성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산문 장르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장면과 그 당시의 생각과 일치되는 표현을 『열하일기』에서 발견했을 때 가능하면 적실하게 구사된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것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공성학은 김택영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고 『열하일기』 전체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김택영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택영이 稗文은 취할 바가 못 된다고 했을 때 정통 산문에서 패문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제외되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패문은 문예미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성학은 『중유일기』를 쓸 때 정통 산문 범위 밖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괜찮은’ 전범 텍스트의 표현을 적재적소에 끼워 넣었고, 이는 자신의 여행기를 박지원의 문장력으로 수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시대의 착종, 인식의 균열

공성학이 『중유일기』를 썼을 당시 중국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근대’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었다. 크게 보면 『중유일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국한문 혼용체로 쓰인 다수의 기행문이 당시의 상황에 초점을 두면서 5·4 운동을 비롯한 문화 운동, 유학 생활 같은 현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³⁰⁾ 이러한 기행문과 비교할 때 한문으로 쓰인 여행기는 상대적으로 이미 축적된 과거 중국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를 통해 당시 중국을 보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중유일기』는 1920년대 중국 여행기 전체가 아니라 좀 더 좁은 범주의 기행문, 곧 『중유일기』와 공통점이 많은 여행기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특징이 포착될 것이다. 朴榮喆(1879~1939, 호 多山)의 『亞洲紀行』는 1920년대 중국을 여행했고 일정이 계획된 시찰단에 참가했으며 한학에 대한 교양을 갖춘 전통적 지식인이 순한문체로 쓴 여행기라는 점에서 『중유일기』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주기행』과 비교하면서 『중유일기』의 글쓰기에 나타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박영철은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한 곳은 백두산을 비롯한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 쓴 여행기를 모아서 1925년에 『아주기행』으로 간행하였다. 박영철은 1919년에는 간도 지역, 1922년 1월에는 대만, 그해 5월에는 만주와 몽고 지역을 여행했다. 중국 남·북부 지역은 당시 전라북도 參與官으로 있던 박영철이 1924년 3월 17일부터 4월 17일, 대략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경성상업소가 주최한 중국시찰단에 참여하면서 여행하게 되었다.³¹⁾ 특히 박영철은 전주의 收藏家

30) 김경남, 2013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담론과 기행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63, 251-275면.

31) 구사회, 2012 「일제강점기 박영철의 중국기행과 시적 형상화」 『한국평화연구학회학술회』, 333-340면. 이 논문에서 정리한 박영철 일행의 여정은 경성, 중국 봉천, 무순, 산해관, 천진, 북경, 탁주, 한구, 한양, 무창, 양자강, 황주, 팽택, 오강, 채석강, 남경, 상해, 항

로,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던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시문집을 집대성하여 1932년에 17권 6책의 『연암집』을 간행한 적도 있었다. 때문에 공성학과 박영철은 둘 다 한학에 익숙한 전통적인 지식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중유일기』와 『아주기행』에서 비슷한 관점과 유사한 서술을 보여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 소주와 항주, 금릉(남경)은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금릉은 여러 차례 전란을 겪어서 회복될 일이 요원하고 소주와 항주는 옛 유적은 무척 많으나 사회구조가 여전히 발달하지 못한 점이 많다. 봉황대, 황학루 등 여러 누대는 예전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흥폐해져서 옛 사람이 시에서 말한 풍경과 맞지 않는다. 서로는 강남의 뛰어난 승경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옛날에 문인과 명사가 그곳에 많이 가서 이름을 붙임으로써 더욱 유명해진 것이고 우리 금강산과 비교하면 훨씬 별로이다.³²⁾

▣ 산의 높이는 오천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강산은 오천구백척이다. 만약 우리 부자(공자)께서 금강산을 보셨다면 필시 “금강산에 올라가보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의 명성이 반드시 태산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출한 사람 때문이다. 영험한 땅 역시 사람으로 인해 이름을 얻는 것이니 그 또한 산의 ‘遇不遇’일 것이다.³³⁾

▣는 박영철의 『아주기행』 중국 남·북부 여행기의 발문이고, ▣는 공성학의 『중유일기』 중에서 태산에 올라갔던 5월 2일의 기록이다. 이 두 인용문은 당시 중국의 명승지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는 대신 실제로 본 풍경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동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는 전란으로 흥폐해진 도시의 모습과 사회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인용문은 모두 실제로 보면 금강산의 절경이 유명한 중국의 명소에 비해 훨씬 더 훌륭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박영철과 공

주. 소주, 상해, 청도, 대련, 여순, 안동, 신의주, 경성으로 공성학 일행의 여행 경로와 겹치는 곳이 많다.

32) 朴榮喆, 『亞洲紀行』 하편 “蘇杭金陵, 最爲著名。而金陵屢經兵燹, 復舊杳期, 蘇杭古蹟甚富, 而制度尙多未闡。鳳凰黃鶴諸樓臺, 古未知其如何, 而到今荒廢, 未符於古人詩境。西湖可謂江南絕勝, 然亦由古之文人達士多來寄跡, 名以之而益著, 比諸我金剛, 不及遠矣。”

33) 공성학, 『중유일기』 5월 2일 “山之高稱五千尺, 而如吾金剛山則五千九百尺也。若吾夫子見金剛, 則必曰: ‘登金剛而小天下’。然而金剛之名未必勝於泰山者, 有以人傑、地靈而地亦因人而名焉。其亦山之遇不遇也。”

성학은 여전히 ‘과거’ 중국의 문화를 부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이 보인 실망감의 정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한 과거와의 대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앞에서 공성학이 『중유일기』를 쓰면서 『열하일기』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서술하였으나 결국 핵심은 2장에서 논의하였던 『열하일기』의 삽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유일기』에서 『열하일기』가 삽입되는 대목에서의 특이점은 묘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 장면 묘사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유일기』에서 자신이 본 광경 묘사로 가져왔던 몇몇 대목은 원텍스트인 『열하일기』에서는 별록으로 처리된 부분이었다. 이 대목들은 모두 「駟汎隨筆」에 수록된 구절들로, 『중유일기』에서 상해에서 본 상여 행렬은 ‘車制’, 극장의 넓은 규모는 ‘戲臺’, 항주 상점의 사치스러움은 ‘市肆’에서 가져온 것이다. 『열하일기』에서 이 부분은 일종의 논설에 가깝다. ‘거제’는 중국의 수레 제도를 기록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해 썼으나, 예외적으로 초상 제도만 너무 쓸데없이 사치스럽다는 것이었다. ‘희대’, ‘시사’에서도 변화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인식과는 달리 변성한 청나라의 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원텍스트에서 이 구절의 묘사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었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변화함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대 조선인들이 청나라를 바라보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합리적인 제도들을 조선 사회에 소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청나라의 변영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였다. 그러나 공성학은 예외적으로 제시했던 상여 행렬 구절을 가져왔는데, 그때 방점은 성대한 행렬이지만 잡다해서 본받을 점이 없다는 데에 놓여 있었던 것 같다. 이를 필두로 『중유일기』에서는 『열하일기』의 구절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유일기』 4월 26일 일기에서는 신행 행차의 묘사를 가져왔는데, 이는 『열하일기』 7월 3일에 우연히 본 신행 행차를 묘사한 대목이다. 원텍스트인 『열하일기』에는 장면 묘사 이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간 서술이 없지만, 공성학은 이 구절을 가져오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우아한 예식보다 못하다(不若吾東之雅儀)”라는 평가를 덧붙이

고 있다. 항주의 점포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아래야 장사가 잘 되고 재물신이 도우리라고 믿기 때문인데 이것이 ‘미관을 위해 낭비한 것’이라는 평가를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23년의 공성학이 중국을 비판할 때 그 기준이 박지원이 제시했던 18세기 중국의 ‘변화함’이라는 점은 다소 생경해 보인다. 이것은 서술자의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견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중유일기』 벌문에서 공성학은 자신이 일본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시기 대부분의 경우처럼 일본시찰단을 통해 일본 여행을 했다면 더욱 더 근대화가 핵심적인 덕목으로 떠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중유일기』에도 기본적으로는 ‘근대화’라는 기준으로 중국의 낙후된 지점을 비추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구절들은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비근대적이라는 의미일까. “우리나라의 우아한 예식보다 못하다(不若吾東之雅儀)”를 보면 아마도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에 정말로 번성했던 도시였던 상해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서는 먼저 박영철의 『아주기행』과 공성학의 『중유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인 기녀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 일류 가기를 불렀는데 네 명이 왔는데 모두 시비를 달고 왔다. 가기들은 모두 이십 세 이하의 미인이었고 시비도 가기만큼 아름다웠다. 옆에 앉으라고 불렀더니 가기는 술을 따르지 않고 말로 응대를 하고 노래 한 곡을 할 뿐이었고 대략 2, 30분 사이에 인사하고 가 버렸다. 이것이 일류 기녀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한다. 연회가 끝난 뒤 관광차 일류 가기가 있는 가게로 갔는데 가게 주인은 소녀를 사서 교양을 갖추게 하여 영업하는 사람이었다. 세 명의 가기가 있었고 문과 방의 설비가 극히 화려하였다. 자단복으로 만든 와상과 의자가 있었고 벽에 걸린 서화는 모두 고금의 유명한 사람들이 쓴 것이었으며 그 밖의 다른 것도 일반적인 妓樓의 수준이 아니었고 가기는 그저 여러 연회석에 가서 응대만 할 뿐이었다. 높은 사람이 와서 요리를 주문하면 유흥을 위해 응대를 하는데 이러한 가기는 나이가 스물을 넘으면 첨이 되어 기적에서 빠진다고 한다. 가기의 칭호로는 일류는 ‘창서’, 그 다음은 ‘장삼’, 그 다음은 ‘공이’, 매춘부는 ‘아계’, 고등 매춘부는 ‘주가야계’라고 부른다고 한다.³⁴⁾

34) 朴榮喆, 『亞洲紀行』 하편 “招中國一流之歌妓，四人并至，皆有侍婢隨從。歌妓年皆二十以內之美人，侍婢亦不下於歌妓之妙姿。在傍使喚，歌妓不爲酌酒，只是談話酬應，歌一曲，而約二三分間辭去。此是一流妓之通例云。宴罷後觀光次，往一流歌妓之住家，家主買小女教養而營業者”

▣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자 어린 기녀 여덟아홉 명이 비가 오는데도 찾아와 차례대로 다리가 짧은 탁자에 앉아 술을 따르거나 담배를 권했다. 이에 노래를 부르라 하니, 호금(胡琴)의 활을 손에 든 남자가 호금을 가지고 와서 기녀 옆에 앉아 연주하니, 기녀도 소리를 높였다. 나는 사성(四聲)과 오음(五音)의 운조(韻調)를 이해하지 못하여 다만 그 소리를 듣기만 하였다. 노랫소리는 긴장되고 무척 빨랐으며 혀가 뻣뻣하고 목이 잡겨 마치 어린아이가 어리광 부리는 것 같았다. 꼭 연주를 마치자 다들 가겠다고 하여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해서 자리가 이미 텅 비었다. 기녀가 자리에 앉아 있던 시간은 길게 잡아도 10~20분에 불과하였는데 나오는 요리가 최소한 30~40가지를 넘어 그 풍속이 놀라웠다.³⁵⁾ (밀줄은 『열하일기』 구절을 가져온 부분-인용자)

『아주기행』에서는 상해의 여러 면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은 『중유일기』와 비슷하게 기녀들과 어울리는 장면이다. 이 인용문에서 박영철은 연회석에 불려온 가기들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할 뿐 대체적으로는 당시 중국 기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 중유일기는 식당에서 기녀들의 접대 장면과 노래 부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묘사는 전후 맥락을 보면 기녀가 중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텍스트인 『열하일기』에서는 호통치면서 하는 말에서 등장한 표현이었다. 공성학은 애써 중국을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편에 걸쳐 실제로 어떤 점이 핵심적인 문제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비판의 대상은 일정하지 않다. 이 표현을 제외하면 『중유일기』에서는 노래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열하일기』 구절을 가져왔고 기녀가 손님을 접대하는 시간이 짧다는 점과 요리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풍속에 대해 놀랍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아주기행』에서는 상해의 일류 기녀를 서술하면서 그 다음에 전혀 반대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상해 기차에 1, 2, 3등석 말고 '빈민차'라는 칸이 있는데 여

也。有三歌妓，門房設備極其華麗，用紫檀臥床椅子，掛壁書畫，皆古今聞人達士揮灑，其他凡百，非普通買春，只以歌妓，酬應於各處宴席。有貴紳來遊則買進料理，酬應助遊興，此等歌妓，年過二十，則爲人之妾落籍云。歌妓中稱號，第一流謂之唱書，其次謂之長三，其次謂之公二，賣春婦謂之野鷄，高等賣春謂之住家野鷄云。”

35) 공성학, 『중유일기』 4월 7일 “居未幾，童妓八九名，冒雨以來，次第坐短脚桌，斟酒勸煙。乃命唱歌，有胡弓男子，挾胡瑟，入坐妓側，而彈之，妓亦舉聲。余不解四聲五音之韻調，而但聽人聲，樂音緊張而促急，舌強喉濶，如乳孩弄嬌，曲終倏請去，余但點頭悠悠，一去二去，座已空矣。妓桌之坐，遲不過一二十分，食碗之進，少不下三四十種，其風俗可駭。”

기애 탄 가난한 승객들은 가축 같은 대접을 받고, 도적이 얼마나 많으면 상해의 정거장에는 강도범과 절도범을 사진을 걸어 놓을 정도라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상반된 내용은 어떤 일관된 문제의식 아래에서 제시된 것이다. 『아주기행』에서는 자신의 중국 체험보다는 중국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기록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비교적 견조하게 중국의 이모저모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생활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상류사회와 지식인 중에는 나라 걱정에 뜻을 두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류층의 경우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염치도 없고 도적이 횡행하며 도박이 만연해 있어서 일자무식과 명하니 우둔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다. (중략) 내 짧은 생각으로 보면 오늘날 늙은 중국과 몽매한 중국은 다스리기가 어렵다.³⁷⁾

박영철은 당시 중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늙은 중국’, ‘몽매한 중국’으로 중국을 요약하고 있다. 이는 순한문체로 글을 쓰는 전통적 지식인의 범주에 속해 있더라도 더 이상 당시 중국에 대한 동경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박영철에 비하면 공성학은 여러 감정이 혼재된 채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공성학은 한편으로는 근대라는 잣대로 중국의 낙후성을 지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치스러움에 대해 비판했다. 또 박영철이 다소 거리를 두면서 중국 사회를 관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성학은 여전히 중국 사회를 경험하는 것에 치중했다.

공성학은 저녁을 먹는데 8, 9명의 기녀와 와서 술을 따르고 담배를 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온 요리가 3, 40종을 넘었던 상해의 요리점(4월 7일)과 북경의 기생집(4월 27일)에서의 일을 서술했고, 극장 건물의 규모, 상해의 댄스홀에 갔던 경험도 쓰고 있다. 항주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에서 물대는 기계[灌水機]를 써서 편리하게 물을 나르는 장면을 보고 감탄했고(4월 9일), 남경 진회하에

36) 朴榮喆, 『亞洲紀行』 하편 “江南物色景致, 非北部之比也。汽車一二等乘客, 皆衣冠鮮明。青年男女眉目清秀者多, 一二三等外, 別有貧民車, 待遇與畜物無異。上海停車場, 揭示強竊盜寫真, 戒不良者, 可知盜賊之多矣。”

37) 朴榮喆, 『亞洲紀行』 하편 “中國土廣人稠, 生活程度, 千差萬別。上流社會之有學識智慮者, 雖不無有志憂國, 至於下流, 利己忘國, 無廉無恥, 盜賊橫行, 賭博狼藉, 目不識丁, 蠢然愚昧鄙穢者多矣。(中略) 以愚淺見則, 以今日老大之中國, 夢寐之中國, 殆難統治。”

서는 술과 기녀를 대동하고 배를 타는 호사를 누렸으며(4월 17일), 여산폭포를 보고 크게 만족하기도 했다(4월 20일). 비록 공성학이 일본에 비해 중국의 전근대성을 느끼기도 했고 상상했던 것과 다른 실제 유적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으며³⁸⁾ 큰 규모로 무순의 탄광이 개발된 것을 보고 중국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도 했지만,³⁹⁾ 박영철이 언급했던 “일자무식에 우둔하고 비천한 하류사회”를 볼 기회도 없었고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여러 유적들을 직접 보는 것에 만족했고, 그 경험은 대체로 그의 문인 취향을 만족시켜주었다.

홍삼 판로에 대한 정보에 비중을 할애했지만, 공성학이 중국의 여러 명소를 둘러볼 때의 모습은 냉철한 상인보다는 전통 문인에 가까웠다. 어쩌면 박영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공성학이 1923년에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발문에서 밝힌 것처럼 전통적인 한학 교육에서는 중국에 대한 책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중국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몇 차례 중국을 둘러본 박영철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중유일기』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때로는 모순되게 보이는데, 『열하일기』 구절이 간간이 삽입되면서 문제의식의 부재와 일관적이지 못한 인식은 더욱 더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또 『중유일기』에서 『열하일기』의 직접적인 흔적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묵사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공성학은 상여 행렬이나 신행 행차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열하일기』에서 이 장면 묵사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20세기 항주의 사치스러운 점포나 상해의 극장은 박지원이 묵사했던 18세기의 시장과 극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바로 그 때문에 20세기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정보를 얼마나 담아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중유일기』에는 1923년도 중국에서 본 새로운 모습들을

38) 이은주, 앞의 논문, 205-209면.

39) 공성학, 『중유일기』, 5월 13일 “但以清國政府言之, 是足爲富國之一大財源, 而不能自營暴棄地寶, 其亦愚矣.”

설명하는 대목이 적지 않지만, 묘사라는 서술방식에 섬세하고 다채로운 정보가 담길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텍스트의 삽입은 아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시대 여행록 간에 서술이 중복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유일기』에서 『열하일기』의 구절들을 녹여내는 방식은 20세기에 확연히 달라진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당시 중국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중국 인식을 감안할 때 18세기의 박지원이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표현이 1923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성학은 완전히 새로운 견문은 자신이 서술하지만 그 중에서 이전과 비슷한 모습은 박지원의 표현을 넣어 『중유일기』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공성학은 『열하일기』에서 유의미했던 착상이나 형식을 당시의 시대상황과 부합하게 적용시킨, 이른바 “창조적으로 변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신의 여행기에 도입하거나 표현을 가져오는 방식을 택했고, 그 결과 『중유일기』의 기조는 다소 모호하게 되었다. 단적으로 『중유일기』는 1923년의 중국 여행기이지만, 이 여행기는 20년대에 나왔던 다른 중국 여행기들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기가 어렵다. 『중유일기』에는 18세기 중국의 번영기를 서술했던 『열하일기』의 흔적이 어려거리고 20세기의 공성학은 중국에 대한 동경과 비판 사이를 어정쩡하게 서성이고 있다. 공성학은 중국의 근대적 풍경보다 중국의 옛 유적을 보며 유명한 시문이나 고사를 떠올렸고, 직접 본 중국의 일상적인 풍경, 곧 혼인이나 장례 행렬, 상점이 즐비한 길거리의 모습을 박지원의 표현으로 그려냈다. 이것을 공성학의 문학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열하일기』의 후광을 빌려오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중유일기』는 20세기라는 당대의 풍경 속에 과거의 서술이 은밀하게 조합되어 불안하게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4. 결론

본고의 논의는 공성학의 『중유일기』에서 『열하일기』와 동일한 표현이 보인다

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루어졌다. 전근대시기 여행기, 특히 여행록에서도 텍스트 간 유사한 표현이 다수 있지만, 여행록의 저자들은 대체로 문인이었고 그런 경우 자신이 직접 본 견문과 감상을 다른 텍스트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행기를 읽는 독자에게도 불필요한 혼선을 놓게 한다. 당시 자신이 본 상황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장면이 나오면 대개 그 장면을 그 텍스트의 새로운 점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개성상인이자 문인인 공성학이 『중유일기』를 쓸 때 『열하일기』의 표현을 발췌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거쳐 삽입하는 양상은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문으로 중국 여행기를 남긴 박영철의 『아주기행』과 비교하여 공성학이 상대적으로 훨씬 전통 문인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공성학 일행의 중국 여정과 개인적인 문인 취향이 어우러져서 그가 느낀 중국의 모습은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해도 『열하일기』의 변성한 중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18세기 『열하일기』의 형식이나 풍경 묘사는 20세기 『중유일기』에 그대로 삽입되어도 무방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중유일기』는 공성학의 서술에 박지원의 표현이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18세기 『열하일기』의 중국에 대한 인상이 20세기 『중유일기』의 어조를 견인하면서 20년대 당시의 대체적인 중국 인식과는 거리를 보이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글쓰기의 양상을 논의할 때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홍삼 판매로 자산가가 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개성 문인의 특수성을 특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20세기 개성문인의 글쓰기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주제어 : 공성학, 『중유일기』, 『열하일기』, 중국 여행기, 1920년대, 표절, 『아주기행』

투고일(2017. 11. 3), 심사시작일(2017. 11. 13), 심사완료일(2017. 12. 4)

〈Abstract〉

The distance between *Joongyou Ilgi*, and *Yeolha Ilgi*,
between homage and plagiarism

Yi, Eunju *

Joongyou Ilgi, what Kong Sunghak traveled to China in 1923 and wrote,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contains the image of China in the 20th century.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that there is suspicion of plagiarizing *Yeolha Ilgi*. When similar phrases appear between the *YeonhaengRok*(燕行錄, Records of Travels in Qing Dynasty) of the premodern period, they are not all plagiarized. It is very common to gather and organize related data about various information in China, because it is understood to be a kind of accumulation of public knowledge.

However, *Joongyou Ilgi* has a problem in that it uses these verses in his own experience. In this paper, we have presented several examples where the verses are almost similar, but the readers are far less likely to notice the reference to the previous text because the place is not the same and the subject is not the same. Therefore, When Kong writes this book, unlike other *YeonhaengRok*, we find that he took random verses from *Yeolha Ilgi* and inserted them into his own writings.

So why did he choose *Yeolha Ilgi*? This is related to how Park Jiwon was perceived by the literati of Kaesung. The Kaesung literati actively accepted the *Bukhak*(the Thoughts for learning Qing Culture) school, which was led by Park Jiwon. And Kim taegyeong(金澤榮) who was a key figure at that time, published the collection of Park's works several times. Therefore, Park's *Yeolha Ilgi* was very special to Kong. Kong wrote *Joongyou Ilgi* with reference to *Yeolha Ilgi* and brought some passages in the sense of affection similarity and respect. So he made the result of modifying his own book with

* A Lecure-only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s writing ability.

However, this led to some problems. First, *Yeolha Ilgi* was written in a clear problem recognition, and by borrowing these verses in part, *Joongyou Ilgi* was unable to maintain a consistent view. The descriptions were neither new nor meaningful. By inserting Park's expression into his book, Kong's *Joongyou Ilgi*, a record of his travel in China in 20th-century, has grown into a shadow of Chinese 18th-century shadows, far from the general perception of China in the 20s.

Key Words : Kong Sunghak, *Joongyou Ilgi*, *Yeolha Ilgi*, a travel book on China, 1920's, plagiarism, *Aju Gihaeng*